



제주지검 78년 역사 뒤로... 공소청 출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립... 청사 간판·현판 철거
검사 직접수사권 없어지고 중대범죄 수사 중수청으로
제주는 중수청 없어 광주 관할... “정원 20% 줄어든듯”

1일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
방검찰청 청사.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검찰 간판과 입구에 설치됐
던 ‘제주지방검찰청’ 현판이 철
거돼 있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
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곳곳에
서 ‘검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
이 진행된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주지방공소청’ 간판과 현판은
아직 없었는데 출범 당일 내걸 예
정이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 함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
가 바뀌면서 검사는 공소 제기·유
지를,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를 각

각 맡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제주지방공소
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제주지검은
1945년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출발해 1947년 제주지방검찰청으
로 개칭됐으며 1948년 검찰청법 제
정으로 법원에서 독립된 검찰 조직
이 됐다. 70여 년간 이어온 제주지
검의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
록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
면 제주지방공소청은 기존 제주지
검의 형사1부·형사2부·형사3부와
사무국 산하 총무과·사건과·집행
과를 유지한다. 반면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폐지된다.

검사 정원은 기존 32명에서 33명
으로 1명 늘어난다. 청장 1명, 차장
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28
명으로 구성되며, 신대경 제주지검
장이 초대 제주지방공소청장으로
전보됐다. 또 검찰직 수사관은 형
사법무직으로 변경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의
권한은 유지된다. 관련 법에 따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최대 90일
동안 기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일부 검사·수사관 등이 중수청으
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공소청 전체 정원도 기존보다
약 2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
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 직원들은 구
체적인 숫자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있
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
단은 광주지방공소청 소속으로 바
뀌며, 4·3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
한 재심 청구 등 업무는 그대로 유
지될 예정이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
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부
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외국
죄 등을 담당한다.

다만 제주에는 지방중수청이 들
어서지 않는다. 전국 6곳에 지방중
수청이 출범하며, 제주는 광주지방
중수청 관할에 포함된다. 이에 따
라 제주지역 중대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광주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중수청
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5성급 호텔서 염소가스 발생... 59명 병원행

5성급 호텔내 수영장 소독약품 배
합 과정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59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
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호텔에
서 “전체 층에서 락스 냄새가 난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오전 10시53분쯤 전체 층
투숙객을 대상으로 대피방송을 실
시하고 임시의료소를 설치했다.

이 사고로 직원과 투숙객, 수영

장 이용객 등 59명이 구토와 어지
럼증,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해 병
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수영장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이 잘못된 비율로 배합되
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 현장에는 연산강유역환경
청과 해군,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가스 발생 경위와
관계자 과실 혐의 등을 조사할 예
정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도남동 사거리 차량 돌진사고... 8명 병원 이송

도로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6분쯤 제주시 도남
동의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으로 돌진하
면서 차량 6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2세 남아가 일
굴 등을 다치는 등 총 8명이 병원
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9000여명 어르신 돌봄 위기” 공공연대노조 생활지원사지부

제주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들이 대량해
고 위기에 놓였다고 제주도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
주생활지원사지부(이하 노조)는 1
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원서 대량해고
와 9000여 명 어르신 돌봄 위기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현
65세에서 연장할 것과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5개 노인복지기관
과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2개 기관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이들 기관을 포함한 3개 기관
이 올해를 끝으로 수탁사업 중단
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
비스원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맡아
기존 생활지원사의 고용을 이어가
고, 어르신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유리기자



카약 체험하는 어린이들 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에서 어린이들이 카약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충간소음 고통”... 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충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법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
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

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다
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
기를 들고 위층에 살던 B씨를 찾아

가 “죽여버리겠다”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
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
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에 있다
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
렀다면 이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판사했다. 박소정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010-4450-4316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